

(FGS)가 1명(3%)이었다.

2) MN는 chronic persistent hepatitis(CPH)가 5명(46%), chronic active hepatitis(CAH)가 4명(36%), acute viral hepatitis(AVH)가 1명, 정상인 1명(9%)이었으며, 초기의 임상양상은 腎症候群(6명), 蛋白尿(1명), 血尿(1명)으로 나타나며, 임상적으로 肝疾患의 證據가 있는 예는 2/12명으로 낮았다.

3) MPGN은 liver cirrhosis(LC)가 6명(50%), CAH가 6명(50%)이 있었으며, 초기임상양상은 血尿(5명), 蛋白尿(1명), 腎症候群(1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전부가 임상적인 肝疾患의 症狀이 있었다(이중 4명은 肝疾患의 症狀이 主訴였고 腎疾患의 症狀은 없었다). 즉, 黃疸의 過去履(4명), 全身衰弱(2명), 急性肝炎(2명)등이 있었으며, 특히 MPGN의 경우 肝疾患이 發見된 후 임상경과중 임상적 腎疾患으로 發展(6명)된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4) CSGN은 LC가 2명, CAH가 1명, 정상인 1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慢性腎不全(2명), 高血壓(1명), 蛋白尿(1명)로 발현되었다.

5) Me GN(3명)은 CAH가 2명, 정상인 1명이었으며, 각각 急性絲球體腎炎, 血尿, 腎症候群으로 발현되었으며 임상적 肝病變의 증거는 없었다.

6) MC(3명)은 LC, CPH, CAH가 각각 1명씩이었으며, 血尿, 高血壓, 腎症候群으로 발현되었다.

이상에서 腎臟 및 肝의 組織檢査所見과 臨床檢査所見으로 肝炎B抗原과 관련된 腎疾患과 肝病變과의 몇 가지 相關關係를 考察하였다.

- 7 -

사구체신염에서 HBV 표식자에 따른  
임상적 관찰

高麗醫大 內科

邊寬洙 · 徐相烈 · 南宮鎭三  
金亨奎 · 洪津園

우리나라는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유행율이 높고 보균자가 많음으로써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호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신사구체 질환과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감염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이래 HBsAg과 신사구체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신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 직접세포손해능 및 면역복합체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외에 자가면역질환과의 관

Table 1. Comparison of Various Parameters between HBsAg Positive and Negative Group (Mean±S.D.)

	HBsAg positive group(n=6)	HBsAg negative group(n=29)
C3(mg/dl)	70± 10.4	96± 34.9
C4(mg/dl)	19± 6.0	29± 12.6
IgG(mg/dl)	1,015±348.0	1,035±259.4
IgA(mg/dl)	316± 64.2	259± 82.3
IgM(mg/dl)	197± 66.0	138± 33.1
IgD(mg/dl)	45± 11.0	60± 36.3

\* Ig=Immunoglobulin

계등으로 설명되거나 HBsAg 혈중을 동반한 사구체 질환의 경우 혈중에서 면역복합체가 발견되고 C<sub>3</sub>치의 변동과 함께 신조직內에서 HBsAg, HBeAg을 포함한 면역복합체, IgG, C<sub>3</sub>등의 침착이 증명됨으로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HBsAg 혈중을 동반한 사구체 질환의 경우,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가 가장 많고 신 증상은 혈노 및 단백뇨가 흔하다고 하나 보고자에 따라 이견이 있으며 그 빈도에 대해서도 아직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신조직 검사가 가능했던 신사구체 질환자중, 혈중 HBsAg 유무에 따라 신 증상과 혈청 Complement, 면역글로부린 및 신조직 검사 결과를 비교관찰하고자 하였다.

1) 총 35예중 HBsAg 양성군이 6예(17.1%)로 남자 3예, 여자 3예였고 평균 연령은 33.3세였으며 이중 1예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을 동반하였다. HBsAg 음성군은 29예(82.9%)로 남자 16예, 여자 13예였고 평균 연령은 28.5세였으며 이중 Anti-HBs 음성예가 8예(27.6%), Anti-HBs 음성예가 21예(72.4%)였다.

2) HBsAg 음성군 6예중 혈노만을 보인 경우가 1예(16.7%), 단백뇨 3예(50%), 혈노와 단백뇨 모두 동반한 경우가 2예(33.3%)였다. HBsAg 음성군 29예중 혈노만을 나타낸 예가 2예(6.9%), 단백뇨 13예(44.8%), 혈노와 단백뇨를 모두 나타낸 예가 13예(44.8%), 그리고 혈노와 단백뇨 모두 없었던 예가 1예(3.4%)였다.

3) HBsAg 양성군의 24시간 노 단백은 4.6±4.73g/day였고(신증후군 4예 66.7%, 신증후군 이외의 질환 2예 33.3%), HBsAg 음성군의 24시간 노 단백은 5.2±5.31g/day(신증후군 19예 65.5%, 신증후군 이외의 질환 10예 34.5%)였다.

4) HBsAg 양성군과 음성군의 혈청 C<sub>3</sub>, C<sub>4</sub> 및 면역글로부린치는 Table 1과 같다.

5) HBsAg 양성군을 신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분류하면,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가 3예(50%)였으며 이중 1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동반하였고 Non-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with subendothelial deposit가 2예(33.3%), 그리고 Mesangi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가 1예(16.7%)였다. HBsAg 음성군에서는 Minimal change lesion 9예(31%),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가 5예(17.2%) IgA nephropathy 4예(13.8%), Focal and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3예(10.3%), 그리고 Lupus nephritis, Chronic sclerosis, Diffuse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가 각각 2예(6.9%), Non-proliferative mesangial deposit가 1예(3.4%)였으며 나머지 1예는 조직 검사에 실패하였다.

— 8 —

### 단백뇨, 신증후군 및 만성신부전에 있어서의 HBV 표식자의 양성율

한양의대 내과

박한철 · 강흥명 · 박찬원

최근에 B형간염 바이러스의 항원 또는 항체가 사구체 신염 환자의 혈청 또는 신 사구체에서 발견되어 이들이 사구체 신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B형간염 또는 보균자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사구체신염의 한 원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그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연자들은 1978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한양대학병원 신장내과에 입원 또는 외래통원중인 환자중에서 신생검을 실시한 184명과 혈액부석중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 297명을 대상으로 하여 radioimmunoassay를 통한 혈청학적 검사상 B형간염 표식자인 HBsAg, Anti-HBc, Anti-HBs 양성율과 신생검에 의한 각종 사구체 신염과의 관계, 그리고 장기간 혈액부석중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부석전후의 B형간염 이환율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1) 신생검 실시환자 184명중 HBV 항원 또는 항체가 양성인자는 131명으로 71.2%였으며 HBV 항원-항체가 모두 음성인 환자는 53명으로 28.8%를 차지하였다. 또한 HBsAg 양성인 환자는 24명으로 13.04%였다.

2) 각 신질환군에 있어서 HBsAg 양성율은 Minimal

change Nephrosis 환자 82명중 6명(7.3%), Membranous Nephropathy 환자 9명중 1명(11.1%), Focal & Sclerotic glomerulonephritis 환자 33명중 6명(18.1%), membranous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환자 19명중 4명(30.7%), Mesangial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환자 15명중 4명(26.6%), Diffuse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환자 12명중 1명(8.3%), IgA Nephropathy 환자 20명중 2명(10.0%)이었다.

3) 혈액부석중인 만성신부전증환자 297명중, 부석전 HBsAg 양성인 수는 20명으로 6.7%였으며 부석 시작전 HBsAg 음성에서 HBsAg 양성으로 된 환자는 8명으로 2.6%의 이환율을 보였다.

— 9 —

### 成人 腎疾患에서의 血清 B型 肝炎 바이러스 抗原 抗體의 陽性率

延世醫大 內科

萬恩均 · 申成泰 · 李好榮

韓大錫 · 鄭錫浩

病 理 科

崔 麟 峻

1971년 Combes 등이 HBsAg 과 관련된 신장 질환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HBsAg 이 신질환의 병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한국은 간염의 endemic area 이므로, HBsAg 의 신사구체염의 병인 요인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긴급하다.

이에 연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3년 10월 사이에 신증후군, 만성사구체염, IgA 신장병증으로 진단된 192명 및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된 112명과, 대조군으로서는 신질환의 과거력이 없고 이학적 소견 및 간기능 검사상 정상이었던 2,634명을 대상으로 혈청 HBsAg 과 anti-HBs 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HBsAg 양성율은 304명의 신질환 환자에서는 52명(17.1%)으로서, 2,634명의 대조군중 324명(12.3%)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p < 0.01$ ).

2) Anti-HBs의 양성율은 269명의 신질환 환자에서 94명(34.8%)으로서, 대조군 1,583명중 639명(40.4%)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

3) 신생검으로 확인된 신증후군에서는 HBsAg 양성율이 158명중 38예(24.1%), anti-HBs 양성율이 128명